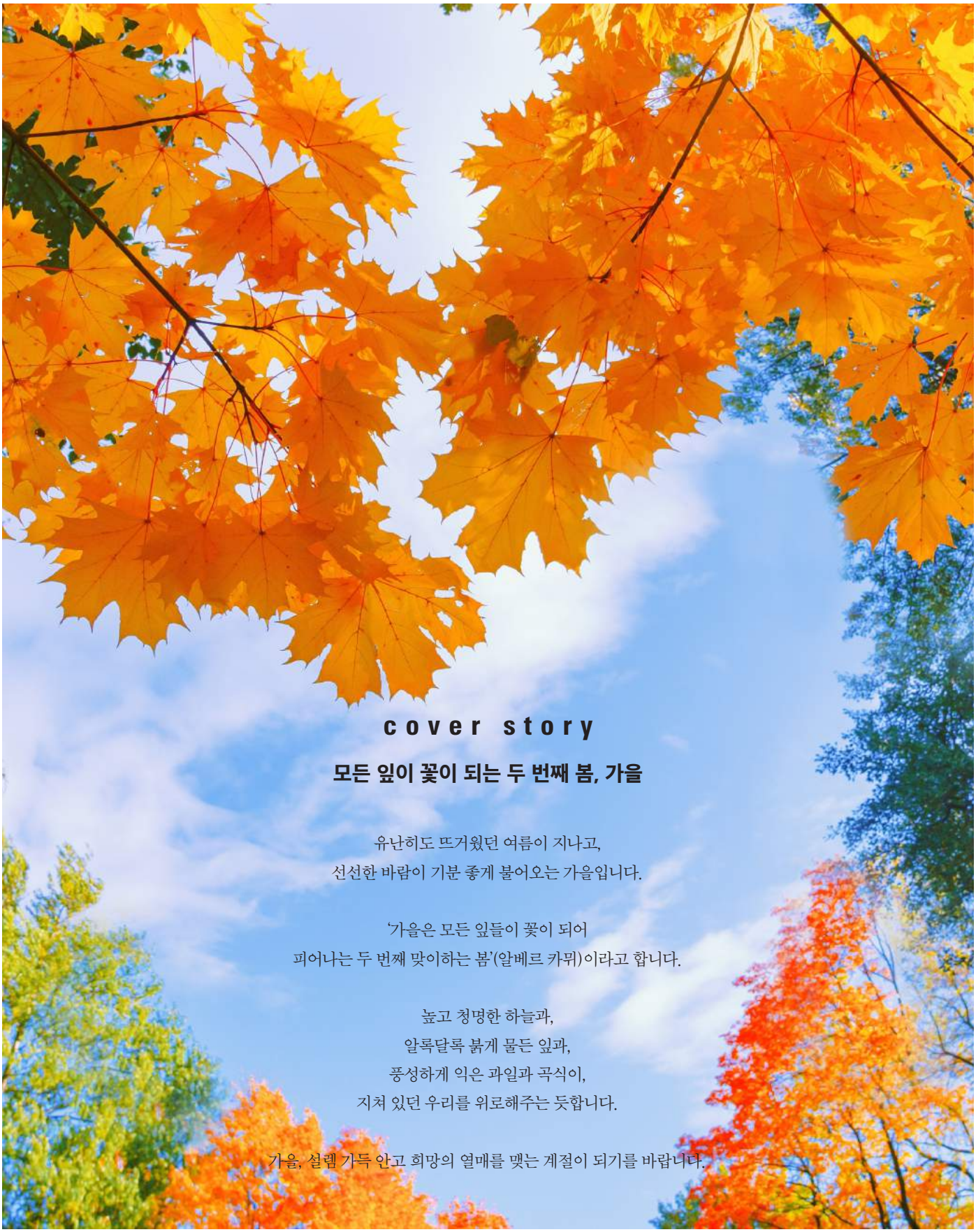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1
SEPTEMBER
•
Vol.224



cover story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들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두 번째 맞이하는 봄'(알베르 카뮈)이라고 합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알록달록 붉게 물든 잎과,
풍성하게 익은 과일과 곡식이,
지쳐 있던 우리를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가을, 설렘 가득 안고 희망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SEPTEMBER 2021 Vol.224
삼정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금융회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전략은?

06 Team Story
ESG 시대를 주도하는
ESG 정보공시/인증 CoE

08 Client+
미래 혁신을 리딩하는
글로벌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

10 Market Reader
현실로 다가온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

12 Expert's Advice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자와
소비 트렌드는?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15 Culture+
현실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진짜인 듯 아닌 듯!'

16 Trusted Advisor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정KPMG 컨설팅은?

18 인재양성소
'2021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포상 수여

20 Smart Play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자 풋살' 즐겨요!

22 삼정人터뷰
신입 회원 대환영! 구기 스포츠로 친목 지수 UP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비즈니스 다이어트(Business Diet)

26 心 Care
쓸데없는 걱정, 어떻게 멈출까?

28 세계는 지금!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 2021 성장 기대 UP

30 Samjong News
'제6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개최 外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금융회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전략은?

ESG 경영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그중에도 금융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확대되는 지속가능 금융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찾아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가 ESG 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선도적 ESG 경영 전략을 조망하며,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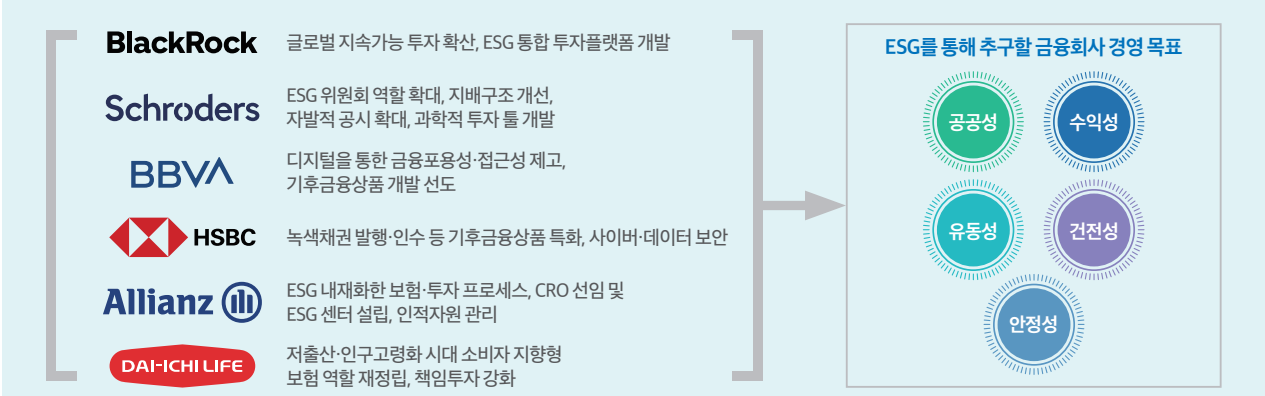
금융회사 ESG 경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요소로 부각

ESG 경영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운영 전반에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영 활동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업을 비롯해 전 기업의 경영 목표로 부상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이해관계자로 경제 내 자금을 중개하면서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금융업 내 ESG 공시 규제 강화나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건전성 규제 논의 등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금융회사의 ESG 경영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상 중이다.

한편, 신사업 기회 창출 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ESG 경영이 요구된다. 글로벌 ESG 채권은 2020년 중 전년(3,580억 달러) 대비 두 배가 넘는 7,000억 달러가 발행되었고, ESG ETF 및 관련 펀드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말 7,000억 달러에서 2021년 1분기 말 1조 9,845억 달러로 급성장하는 등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선도적 ESG 경영 행보



Source: 각 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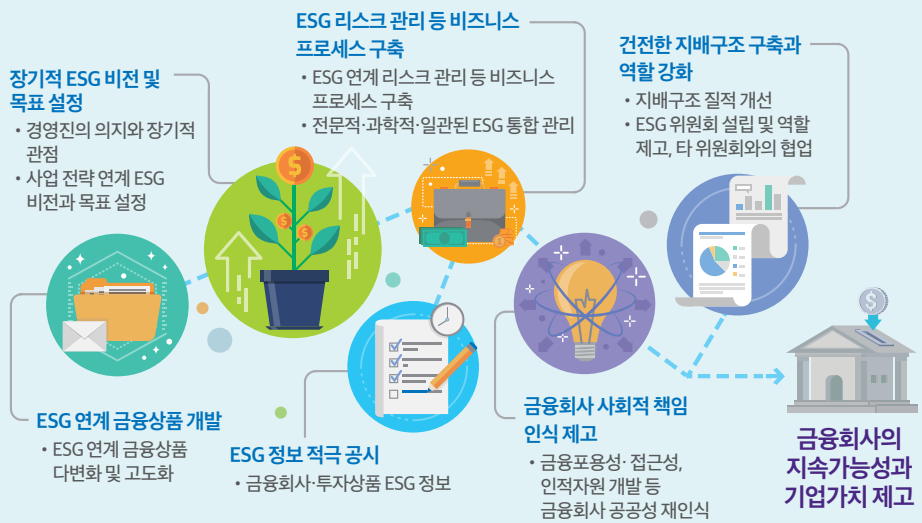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 전략은?

이러한 변화 속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ESG 경영 행보가 두드러진다. 2020년 1월 기후리스크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재편 방안을 발표했던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핵심 투자 플랫폼 알라딘(Aladdin)에 기후리스크의 과학적 · 일관적 측정과 투자를 연계하는 Aladdin Sustainability와 Aladdin Climate 기능을 개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담하는 투자팀(BIS)을 운영하여 수탁자 활동을 지속 강화 중이다. 자산운용사 슈로더 역시 ESG 집행위원회 등 경영진에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impactIQ라는 투자 툴을 개발하여 ESG 투자를 체계화했으며, 지속가능팀·데이터팀 등과 ESG 투자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스페인 대표은행 BBVA는 디지털 금융 선도주자로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접근성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지수 연계 대출, 녹색(구조화)채권 및 지속가능인증 주택 구입이나 SRI 연계 개인연금 상품 등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는 2012년 ESG 이사회를 설립 · 운영 중인 가운데, 2021년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선임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그룹 센터를 신설해 ESG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투자-보험 연계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과정에 ESG를 통합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꾀하고 있다.

일본 내 시장점유율 2위의 생명보험사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험사의 역할을 재정립 중이다. 2020년 9월에는 해외주식 등 모든 자산 투자에 ESG 통합을 선언하고, 책임투자위원회 및 책임투자 센터를 신설하며 건전한 ESG 투자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영 전략 방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국내 금융회사, ESG 경영 전환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ESG 경영을 통해 금융회사는 궁극적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며,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금융회사는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ESG 경영 목표와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CEO와 경영진이 장기적 호흡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ESG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해야 한다. 둘째, 리스크 관리, 투자정책,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등 밸류체인 전반에 ESG 요소가 과학적이며 일관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 데이터 확보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ESG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자사 ESG 경영과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ESG 정보 공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금융회사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기부활동이 아닌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와도 연계되므로,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접근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SG CoE(금융) | 김진귀 전무 Tel. 02-2112-0223 / E-mail. jinkwikim@kr.kpmg.com
여준형 상무 Tel. 02-2112-0207 / E-mail. junhyungyeo@kr.kpmg.com
경제연구원 | 김규림 이사 Tel. 02-2112-4089 / E-mail. gyulimkim@kr.kpmg.com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ESG 시대를 주도하는
ESG 정보공시/인증 CoE

삼정KPMG는 지난 4월 ESG 컨설팅 조직을 센터에서 CoE로 확대 개편했다. ESG 비즈니스 그룹은 ▲ESG 전략/실행 CoE와 ▲ESG 정보공시/인증 CoE ▲ESG 재무자문 CoE 등 총 3가지 CoE로 구성됐다. 이번 호에서는 ESG 공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만큼,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인증, 택소노미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시/인증 CoE를 만나봤다.

ESG 정보공시 & 인증 시장의 급격한 변화

최근 ESG 정보공시 및 인증 시장에서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서 ESG 경영으로 확대되며 형식적인 ESG 정보공시를 이뤄왔었다.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사적인 ESG 전략 하에 시장 친화적인 고품질의 ESG 정보공시, ESG 이행과제 수행, 택소노미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5년에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외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SG 변화로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2023년부터 법령에 따라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는 등 ESG 정보 및 인증 시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SG 정보공시 및 인증의 변화 속에 기업들은 ESG 정보인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인증의 전문성, 방법론 및 독립성을 가진 회계법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인증을 담보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인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HSBC와 같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ESG 정보에 대해서는 동일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 재무정보와 함께 ESG 정보에 대해 인증을 받고 있다.

수백 건의 전략 컨설팅 경험으로 차별화된 정보 공시 서비스 제공

ESG 정보공시/인증 CoE는 삼정KPMG의 ESG 비즈니스 그룹 내에서 감사본부의 ESG 정보공시와 인증 업무를 위해 총 4명이 CoE와 감사본부별로 지정된 29명의 전담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인증 CoE는 ESG R&D, 마케팅 및 ESG 정보공시 및 인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본부 ESG 정보공시/인증 CoE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는 ▲ESG 전략과 연계된 ESG 정보공시 자문, ▲MSCI 데이터를 활용한 벤치마킹, ▲ESG 전문가와 산업별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업, ▲신뢰성 있는 체계적인 인증 서비스,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ESG 정보공시는 단편적 업무가 아닌 ESG 전략과 정보공시 간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적인 ESG 정보공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삼정KPMG ESG 정보공시 자문은 삼정KPMG가 수행한 400여 건 이상의 전략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ESG 전략과 연계해 보고서의 주제 선정 단계부터 전략적인 기획과 작성 자문을 수행하며, ESG 전략과 정보공시 간의 상호 순환적 구조로 연계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되고 차별화된 ESG 정보 공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신뢰성과 활용도가 높은 ESG 평가 기간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MSCI가 제공하는 국내외 약 8,500여 개 기업들의 ESG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객사에게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ESG 요소별로 최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사들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인 전략 자문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등 ESG 정보공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정KPMG는 국내 자문사 중 MSCI 기반의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자문사이다. 이와 함께 삼정KPMG는 ESG 전략 수립부터 정보 공시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ESG 전문가와 금융, 제조, 유통 등 산업별 비즈니스와 프로세스 등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산업별 전문가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의 ESG 정보공시와 객관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삼정KPMG는 그린와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 있고, 검증된 ESG 정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 ESG 정보공시/인증 CoE의 주요 서비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자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자문 업무
ESG 정보공시 자문	기후관련 보고서 (TCFD)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外 ESG 정보공시 관련 자문
ESG 정보인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정보공시 관련 인증 서비스
ESG 채권 사전/사후인증	녹색채권, 사회적채권(SRI)등 ESG 채권 사전인증 및 사후인증 서비스
Taxonomy 관련 자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Taxonomy 관련 자문 등

업계 No.1을 향해

ESG 정보공시 및 인증 CoE는 중소형 기업에 대한 ESG 전략 서비스 제공, MSCI 벤치마크를 통한 자문 서비스 등 ESG 정보공시 및 인증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정KPMG는 ESG 전략 분야뿐만 아니라 ESG 정보공시 및 인증 분야에서도 업계 No.1이 되도록 ESG 정보공시 및 인증시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INTRODUCE — ESG 정보공시/인증 CoE를 소개한다면?

김진귀
전무 (팀 리더)
jinkwikim@kr.kpmg.com

"바야흐로 ESG 시대입니다. 삼정KPMG는 기업의 ESG 경영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ESG 정보공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시우
상무
siwookim@kr.kpmg.com

"17년간 외부감사 및 비감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소비재 산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분야에서도 고객사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상무
jjoung@kr.kpmg.com

"오랜 기간 쌓아온 바이오,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등 제조업에 대한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의 비재무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최고의 ESG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환
상무
jeonghwanhwang@kr.kpmg.com

"ESG 정보공시 및 인증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산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시장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성장의 중심에 있는 ESG CoE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서울반도체는 2020년 기준 매출 약 1.1조 원, 전 세계 LED 시장 3위의 자리를 차지한 글로벌 LED 전문 기업이다. 약 1,400개의 특허를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LED 시장에 유연히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개의 현지법인, 4대 생산 거점을 비롯하여 23개 해외 영업소 망을 통해 고품질 LED 제품을 제공 중이다.

1

미래 혁신을 리딩하는 글로벌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

World Top LED, 비전 달성을 향해!

1992년 설립된 서울반도체는 1999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이래, 설립 10년 만인 2002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고, 2010년까지 19년 연속 플러스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신화를 써왔다. 2011년 이후 더욱 치열해진 LED 업계의 경쟁 가운데에서도 2013년 사상 첫 매출 1조를 달성했고, 이후 1조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며 World Top LED라는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36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4억 원(영업이익률 6.9%)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 성장했다. 상반기 누계 당기순이익은 439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290억 원을 반년 만에 초과 달성했다.

전 세계 LED 공급망 확보한 토탈 LED 솔루션 기업

서울반도체는 대한민국(경기도 안산)과 미국, 중국, 베트남에 현지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에 4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전 세계에 23개 해외 사무소와 1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자외선(UV) LED 및 LED 칩 연구개발을 위해 '서울바이오시스'(구, 서울옵토디바이스)를 계열사로 설립해 LED 칩부터 패키징(Packaging) 및 모듈(Custom Module) 제작에 이르는 전 생산공정을 갖추고 고품질의 LED와 자외선 LED를 양산하고 있다. 매출의 약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 중심 기업이며, 현재 전 세계 60여 개 국가의 조명, IT, 자동차, UV 관련 고객사에 LED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만 4천 개 이상의 특허로 빛나는 기술력

서울반도체는 2021년 3월 말 기준, 1만 4천 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특허 포트폴리오는 물질, 디자인, 시스템, 공법 등 다양한 부문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아크리치와 엔폴라, 와이캅, 썬라이크, 바이오레즈 등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원천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품질 LED의 개발 및 양산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중심의 경영방침에 따라, 설립 초기부터 매년 매출의 약 10%를 R&D에 과감히 투자하여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서울반도체 고유 LED 기술

서울반도체는 특허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LED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서울반도체의 고유 LED 기술로 전 세계 LED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LED 기술력을 알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인 썬라이크는 자연광 스펙트럼(빛 배열) 곡선을 그대로 재현한 세계 최초 LED 솔루션이다. 난반사 및 눈부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블루라이트 피크를 자연광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시각적 편안함과 셍체리듬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췄다. 썬라이크가 방출하는 청색광을 분석한 결과 광생물학적 위험이 없는 안전한 광원임을 인증받아 국제조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로부터 RG-1 등급의 Eye Safety Certification을 획득한 바 있다. 색상의 구현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도 기존 LED 광원이 평균 CRI-80 수준인 반면, 썬라이크는 최고치인 'CRI-100'에 가장 가까운 'CRI-97'에 달한다. 조명 아래에서도 자연광으로 보는 듯한 효과를 주어, 사물의 본연 색상과 입체감을 그대로 표현한다.

서울반도체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한 와이캅은 기존 LED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온 패키지(프레임, 금선 등)를 없애고 LED칩과 형광체만으로 구성된 초소형, 고효율의 신개념 LED이다. 패키지 관련 부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과 장비도 불필요하여 LED의 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진다. 회로기판(PCB)에 바로 부착하여 열특성이 우수한 와이캅은 IT, 자동차, 그리고 조명 부문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단파장 자외선 LED를 개발했고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 서울반도체는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를 통해 전 영역대의 다양한 자외선(UV: Ultra Violet) LED를 전 세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자외선 LED는 눈에 보이는 빛을 구현하는 가시광선 LED와 달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발생시킨다. 경화, 청정, 정화, 살균 등의 파장별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

1.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2. 서울바이오시스 응용실험연구팀
3. 미국 공기청정 시스템 1위 공급 업체
'RGF사 공조시스템'에 제공하는 바이오레즈 기술

어 산업 분야에서 바이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반도체는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하이파워 LED인 Z-Power LED, COB(칩온보드), 360도 빛을 발산하며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필라멘트 LED, 직하형 TV백라이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렌즈기술인 블랙홀 렌즈, LED 컨버터를 대체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나노드라이버 등 다양한 LED 제품들을 출시했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조명, IT, 자동차의 전부문에 적용 가능한 LED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LED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지속적인 LED 제품 출시로 대한민국의 기술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현실로 다가온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시키는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도 포함되면서 각국은 CBAM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CBAM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CBAM이란, EU 역내에 물품을 수출 시,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하여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CBAM은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가 연계 가능한 지역이나 자체적으로 ETS를 도입하고 있는 스위스 등은 제외다.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2025년까지 과세 의무는 없고 탄소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분기별 보고만을 의무로 한다. 발효 시점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 이후 EU ETS 제도에서 무상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CBAM은 EU 역내 수입업자가 CBAM 적용 품목을 수입 시 탄소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탄소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탄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출업체에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 경우, 상품군별 기준치(벤치마크)를 적용하게 되는데, EU 사업장 하위 10% 평균 배출량이 벤치마크로 적용되므로 불리하다. CBAM 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벌칙(Penalty) 규정이 강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탄소국경세 도입(案) 주요 내용

대상 국가	도입 시기	과세 산업/품목	과세 방법	감면 요청
• EU 미가입 국가 전체 • 단, EU ETS 제도 연계 가능 지역 및 스위스 제외	• 2023년 도입 • 2023~2025년: 전환기 (탄소 배출량 및 기납부 비용 보고) • 2026년 이후: 본격 과세	•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 적용 • 2026년 이후: 적용대상 확대 가능	• 수입업자가 CBAM 적용 품목 수입 시 탄소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 구매	• 원산지 국가에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탄소 비용 지출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 요청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국내 경제 & 산업에 미칠 영향은?

한국은행이 올해 7월에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 CBAM 부과로 인해 한국의 EU향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한화 3조 6608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EU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철강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철강기업이 유럽에 수출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 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율로 따지면 2.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 비용은 분석에 사용된 가정(탄소 직간접 배출량 모두 포함, 탄소가격 톤당 30유로, 수출품 탄소 함유량 376만 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탄소 중립 기조 및 탄소배출권의 최근 증가 추세로 볼 때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위기 상황에서 중지(衆志)를 모아야

CBAM으로 인한 타격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EU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서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러시아, 터키 등이 받게 될 타격이 한국보다 크다는 점, 개별 상품별 탄소배출량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기업 간 CBAM 부과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RE100, Net Zero와 같은 ESG전략 실행과 더불어, 기존의 원가회계시스템에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추적/배부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비교 우위를 EU와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함과 동시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국제기준과 호환, 통용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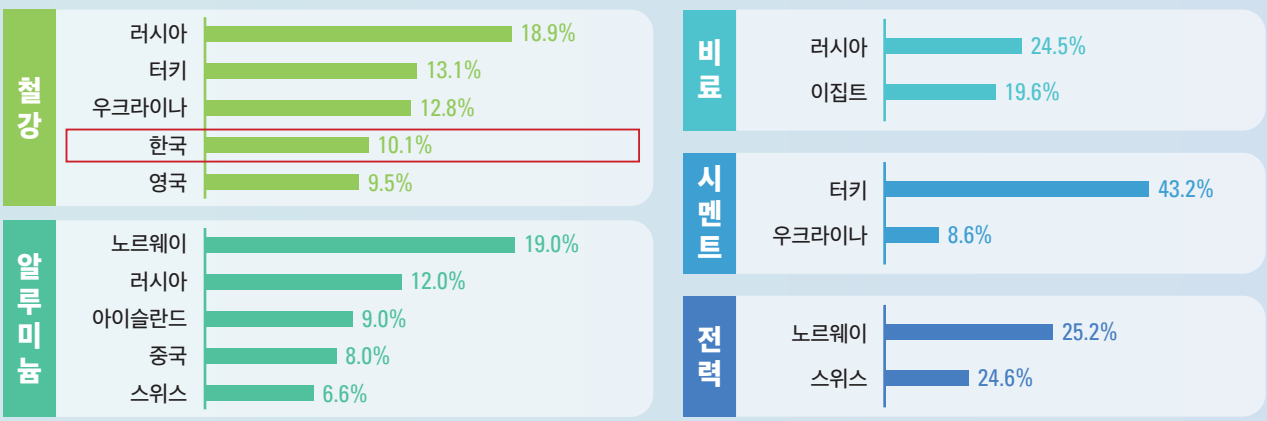
더 나아가 2026년 이후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 자체만이 아닌 전 공급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경영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민관 협력을 토대로 위기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CONTACT US

SCG 통상팀 박원 상무
Tel. 02-2112-0823
E-mail. w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CBAM 적용 산업의 EU 수입 비중



Source: UN Comtrad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0년 기준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자와 소비 트렌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를 이끄는 주요 소비 축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자와 소비 트렌드는 무엇일까? 삼정KPMG 소비재·유통산업 리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코로나19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PMG 글로벌이 전 세계 16개국 1만8657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나, 나의 삶, 내 주머니'(Me, my life, my wallet)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의 76%는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구매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응답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온라인 소매 비중을 방증했습니다. 디지털 테크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음성 활용 기술 등을 경험한 소비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향후 오프라인 매장과 디지털 공간을 연계하는 전략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 및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때 기업이 윤리적이고 진실하며 투명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예전보다 각별히 살펴보는 경향을 보이며, 기업 가운데 반윤리적, 비인도적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업 프로세스에 불투명성이 발견되면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2 기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눈여겨보며, 다른 소비자와의 연결성, 제품 탐색 시 소요되는 시간 대비 효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트렌드를 정밀히 분석하며, 시간과 돈의 상충관계를 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적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출 비중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분석하는 일 또한 기업 전략 수립의 단초가 되며, 타깃 소비자의 지출 요소를 파악해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자 할 때 기업의 상품군이 소비자 관심 영역에 포함되도록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밀레니얼 소비자의 30%는 기업의 환경·사회공헌 활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번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Z세대 소비자의 79% 역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구매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ESG 경영이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연결된다는 부분에 주목해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세대별 소비자 특징을 파악해 차세대 소비 축을 이끌어가는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재·유통산업 리더 신장훈 부대표
Tel. 02-2112-0808
E-mail. jshin@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7월 26일 게재된 한경 CFO Insight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는 언제 지갑을 열까?'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시대의 변화에 흐름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편하게 라이프를 즐긴다는 의미의 '편리미엄'과 친환경 에너지 '이퓨얼'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편리미엄

최근 생활 전반에 '편리미엄'이 대세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고, 불편함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편리미엄 트렌드가 각종 서비스에 반영돼 우리의 일상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는 편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의류건조기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판매가 급증했다. 또한, 어려운 요리 과정 없이 간단하게 데워 먹는 간편식이나 필요한 재료가 손질된 채 담겨 있는 쿠킹박스도 편리미엄 제품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O2O 배달 서비스, 새벽 배송, 집안일 앱 등 반복적이고 귀찮은 노동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들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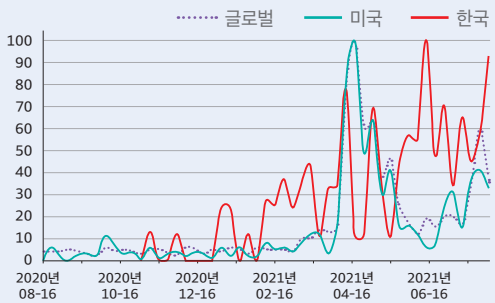
이퓨얼

전기 기반 연료(Electricity-based fuel)이란 영문 약자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드는 인공 합성 연료이다. 이산화탄소와 질소는 대기 중에서 포집(捕執)해 쓰고, 태양광이나 풍·수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제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이퓨얼은 전기·수소차가 보편화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서 내연기관 산업의 생명력을 늘려줄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독일과 일본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퓨얼 관련 정책을 공개했고, 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독일 아우디는 2017년 이퓨얼 연구시설을 설립했고, 도요타·닛산·혼다 등 일본 자동차 3사도 2020년 7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4월부터 연료·자동차·항공·선박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해, 이퓨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개발 계획에 나섰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 '메타버스 시대' 도래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2000년 초 메타버스 1세대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한풀 꺾은 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의 재부상은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트렌드 확산 등 기술, 사회,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했다. 코로나19 이후 게임 '마인크래프트(마이크로소프트)'에서 UC버클리의 졸업식이 2020년 5월 개최됐으며, 네이버 '제페토(네이버제트)'에서 K-POP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가 2020년 9월 진행돼 4,600만 명이 참여했으며,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열린 바 있다.

구글 트렌드에서 'Metaverse' 검색 추이



Source: Google Trends,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구글 검색에서 'Metaverse'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기준으로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냄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행 복 한 일 터

HAPPY WORKPLACE

Culture+
현실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진짜인 듯 아닌 듯!'

Trusted Advisor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정KPMG 컨설팅은?

인재양성소
'2021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포상 수여

Smart Play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자 풋살' 즐겨요!

삼정人터뷰
신입 회원 대환영! 구기 스포츠로 친목 지수 UP

이동규의 두줄칼럼
비즈니스 다이어트(Business Diet)

心 Care
쓸데없는 걱정, 어떻게 멈출까?

세계는 지금!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 2021 성장 기대 UP

Samjong News
'제6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개최 外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인이 추천하는 문화 콘텐츠

현실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진짜인 듯 아닌 듯!'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번 <Culture+>에서는 노래 가사처럼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듯, 현실을 고증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려 한다. 삼정인이 추천하는 웹 드라마 '좋좋소'와 캐나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직장인들의 애환을 느끼며 성장해가는, 웹 드라마 '좋좋소'

'좋좋소'
장르 웹 드라마 **감독/각본** 빠니보틀(박재한)
출연 남현우, 이과장, 강성훈, 조정우 外

제가 소개할 '좋좋소'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된 작품입니다. '좋좋소'는 '좋소 좋소 좋소기업'이란 뜻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을 주인공으로 한 페이크 다큐 형식의 웹 드라마예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PTSD가 올 만큼 현실 고증이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회사 생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드라마 '미생' vs 중소기업 구도로 비교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삼정인에게 추천하게 된 이유는 직장인들의 스토리라 공감이 가는 점도 많고,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 법인이 정말 좋은 회사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총 26부작인데요, 매화가 10~12분 정도라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고, 깨알 재미 요소가 꽤 포진되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로 제격이라 생각해요. 출퇴근길, 혹은 휴식 시간에 짤막하게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수현 S.Analyst (Deal Advisory4)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색다르게! 캐나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김씨네 편의점'
장르 시트콤 **제작** 인스 최, 케빈 화이트
출연 폴 선형 리, 진 윤, 앤드리아 방, 시무 리우 外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 토론토를 배경으로 한국 이민 가족이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폴링다운'이라는 영화에서 한국인 교포를 돈만 밝히는 구두쇠로 묘사한 장면이 많아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김씨네 편의점'은 한국 교포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트콤이라 기분 좋게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 우리 주변의 보통 가족이 직면하는 보통의 문제를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장면과 상황들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장소는 캐나다이지만, 마치 '한국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잘 담은 듯해요. 이민 1세대답게 아빠, 엄마의 콩글리시와 "아빠, 엄마, 아이참" 등이 영어와 혼재되어 한국말로 툭툭 나오는 대사들도 친숙하게 느껴져요. 캐나다 배경과 함께 우리네 사는 보통의 이야기를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김씨네 편의점'을 추천해봅니다!

장지혜 Manager (경제연구원)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정KPMG 컨설팅은?

지난 9월 6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턴트 공채 시즌이 시작됐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컨설팅(Consulting)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예비 삼정인을 위해 1년 차 컨설턴트들이 모였다. 그들이 경험한 삼정KPMG 컨설팅에 대해 들어본다.

임영덕 Consultant (RCS)

삼정KPMG 컨설팅 = #성장 #전문성 #혁신 #젊음

임영덕 성장과 전문성, 제가 삼정KPMG 컨설팅을 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금융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성장과 전문성을 챙길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 삼정KPMG만 남더라고요. 하하. 금융 분야 컨설팅에서 삼정KPMG가 최고라고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 없이 지원했죠.

홍지수 저 역시도 금융기관 컨설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삼정KPMG 컨설턴트 공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때마침 학교에서 채용설명회가 1:1로 열려 참석했는데요, 현재 같은 본부의 이준래 상무님께서 친절히 법인에 대해 소개해 주신 덕에 삼정KPMG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물론, 향후 비전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동원 저는 삼정KPMG의 매력이 젊음과 추진력이라 생각했어요. KPMG Member Firm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 연령도 낮아 혁신성과 젊음이 돋보이는 조직이기에, 꼭 삼정KPMG에서 Trusted Advisor로 성장하고 싶었어요.

박재연 모두 법인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셨네요. 저 역시도 국제통상을 공부하면서 삼정KPMG 전략컨설팅 본부에 국제통상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어느 조직보다 중심적, 체계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배울 수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법인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1년간의 경험? 동기부여 하며 성장 곡선 이뤄가

박재연 어느덧 삼정인이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법인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건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점이에요. 스탭의 직급인 제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해주시는 점에서 늘 감동받고 있어요. 특히, 일방적으로 업무를 주시지 않고, 어떻게 수행하면 더 좋을지,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힘들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동원 맞아요. 각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항상 곁에 계시고,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로 성장하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또한, '온보딩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후 3개월 간 선배 컨설턴트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매년 본부의 파트너분과 의견을 나누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인사관리제도가 있어 더욱 빠르게 적응한 것 같아요.

임영덕 저는 무엇보다 훌륭한 동료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선배 컨설턴트들을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해결하지?' 싶은 어려운 과제들도 훌륭히 해결하시고, 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물론 일 외에도 배울 점이 참 많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힘들 법한데, 자격증 공부 또는 운동 등 자기계발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 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저를 더 발전시켜줄 동료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홍지수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꼽고 싶어요. 인격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뛰어난 분들이 많은 덕분에 부족한 저도 잘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입사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을 통해 친하게 지내고 있어 회사 생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유연근로제를 통한 시간 관리 및 법인 복지 포인트 BLSP를 활용해 필라테스, 헬스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라밸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홍지수 Consultant (MCS1)

합격 꿀 팁! "산업 트렌드 읽고 자신감 있게!"

임영덕 저는 컨설턴트 학회에 가입했던 것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컨설팅이 적성에 맞는지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학회 경험을 통해 컨설팅이 적성에 잘 맞는다 생각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민했던 사항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솔직하게 전했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이동원 추가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복잡하게 여러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기억에 깊이 남은 프로젝트 경험이나 자격증을 컨설팅업에 필요한 업무 역량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박재연 저는 제가 지원하는 분야의 지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최근 현황 및 이슈를 모두 조사했어요. 제가 지원 분야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학습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죠. 면접 당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에도 최신 이슈를 근거로 답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저를 더욱 어필할 수 있었던 긍정적 효과가 된 거 같아요.

홍지수 저도 공감해요. 먼저,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속한 MCS1본부의 경우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의 전략부터 오퍼레이션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에, 금융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수입니다. 저는 금융산업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법인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자료를 많이 살펴봤어요. 또한,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꼭 삼정인이 되어 만나길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이동원 Consultant (MCS2)

박재연 Consultant (SCG)

QR 코드를 스캔하면,
2021년 삼정KPMG 신입 컨설턴트 공채 설명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1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포상 수여

지난 8월 13일, 2021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시상식에는 대표 수상자 5명이 참석해, 김교태 회장에게 표창과 상품권을 수여받았다. 지금부터 법인의 위상을 드높인 성적우수자를 소개한다.

삼정KPMG가 ‘2021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습 1년 차 기본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5% 이내의 성적을 거둔 총 45명의 회계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년 차 기본실무 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267명이 응시하여, 20명(7.5%)이 상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년 차 기본실무 전체 10등 이내 최상위 성적우수자로는 IGH 정형석(1위), CM2 김인규(4위), Deal Advisory1 정동하(6위), Tax3 김희은(9위) 회계사가 차지했다.

2년 차 외감실무 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46명이 응시하여, 25명(7.2%)이 상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2년 차 외감실무에서 Big4 중 가장 많은 인원과 높은 비율의 성적우수자가 배출됐다. 전체 10등 이내 최상위 성적우수자에 Deal Advisory2 정상지(1위), B&F3 김성현(2위), Deal Advisory2 박제홍(4위), CM1 김성운(7위), Tax3 윤지상(10위) 회계사가 포함됐다.

2021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1년 차 기본실무]

정형석(IGH), **김인규**(CM2), **정동하**(Deal Advisory1), **김희은**(Tax3), **서재형**(Tax3), **김경오**(IM2), **심지현**(Tax4), **이병웅**(CM2), **김도형**(Deal Advisory1), **김소임**(IGH), **손정명**(Deal Advisory7), **유남규**(IM3), **권준호**(CM2), **김수진**(IM1), **박성훈**(Deal Advisory6), **한지현**(IM2), **오승원**(B&F1), **김성진**(Deal Advisory1), **우민혁**(ICE1), **윤진우**(Tax4)

[2년 차 외감실무]

정상지*(Deal Advisory2), **김성현***(B&F3), **박제홍***(Deal Advisory2), **김성운***(CM1), **윤지상**(Tax3), **백두산***(IM2), **이혜미**(B&F2), **정지훈**(B&F3), **주의진**(ICE1), **한영욱**(Deal Advisory2), **이다솜***(IGH), **고병관**(B&F2), **안혜선***(B&F2), **이현지***(IM3), **박기석**(Deal Advisory5), **윤창영***(Deal Advisory1), **박찬일***(Deal Advisory1), **설재영**(Deal Advisory5), **윤현식**(Deal Advisory7), **조해린***(Deal Advisory7), **이윤아**(CM2), **변유진**(Deal Advisory2), **손미나**(CM1), **이승로**(B&F1), **김영균***(IM3)

*2년 연속 성적우수자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성적우수자에 선정된 소감은?

정형석 Associate (IGH)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 쑥스럽네요. 여러 방면으로 축하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위 5% 이내에만 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운이 많이 따라준 덕분에 시상식 현장에서 상패와 포상금을 받아 기쁘네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습 회계사이지만, 그때그때 접하고 배운 것을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어 향후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김희은 Associate (Tax3)

성적우수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무척 놀랐어요.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처럼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대표로 시상식에 참여하여 영광이고 기쁩니다. 코로나19로 맘 놓고 여름휴가를 즐기지 못해 아쉬웠는데, 포상금으로 가족들과 좋은 곳에서 외식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GEP 우수자에도 선정되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더욱 노력해서 GEP 우수자에 선정되고 싶어요. 선배 회계사님들을 본받아, 법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가겠습니다.

정상지 Analyst (Deal Advisory2)

예상 밖으로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운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도록 배려해준 이재현 본부장님, 김정환 전무님, 그리고 팀원분들 감사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축하하는 자리 마련해주신 회장님과 L&D, PPC에 너무 감사드리고, 상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침 핸드폰 액정이 다 깨져서 바꿀 때가 되었는데 포상금 잘 사용하여 새 핸드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에 보답하여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성현 Associate (B&F3)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수상자 대표 중 한 명으로 오프라인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회장님께 직접 상패와 포상금을 수상하니 떨리기도 하였고,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상 깊고 의미 있던 자리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은 어머니께 드리며 효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법인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영 Analyst (Deal Advisory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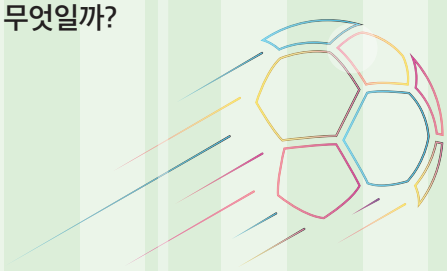
2년 연속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로, 법인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을 처음 참여해보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제 자신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필기시험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또 다른 시험일 수 있는 법인 생활이 남았습니다. 이 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제 자신과 삼정KPMG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ax6 김태경 S.Senior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자 풋살’ 즐겨요!

이번 <Smart Play>에서 여자 풋살을 즐기는 김태경 S.Senior의 여가생활을 탐구해봤다. 김태경 S.Senior가 즐기는 여자 풋살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



1

“골 때리는 그녀, 내가 원조!”

요즘 핫(hot)한 TV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가 ‘골 때리는 그녀들’이다. 축구에 진심인 여자 연예인들과 태극 전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으로, 이 덕분에 최근에 여자 풋살을 즐기는 이들도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자 풋살을 즐겨한 삼정인이 있으니, 김태경 S.Senior. 축구에 진심인 김태경 S.Senior는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1학년까지 캐나다에서 학교 대표팀 소속으로 활동했단다.

“캐나다 유학 시절, 축구를 접하게 됐어요. 학교 대표팀 소속으로 활동하다, 현지 친구들과의 체급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공부와 병행이 어려워 대표팀을 그만뒀죠. 하지만, 학교 내 남녀공학 팀으로 구성된 recreational soccer team은 졸업 때까지 열심히 뛰긴 했어요.”

학창 시절 즐겨왔던 축구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김태경 S.Senior는 한국에 돌아와 삼정인이 된 후 풋살 동호회를 찾았다고 한다. “축구는 단체 스포츠이기에, 팀원이 없으면 운동이 어려워요. 여기저기 동호회 가입을 위해 찾아봤는데, 은근히 우리나라에도 여자 풋살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초여름부터 다시 풋살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운동 중이에요. 이름은 ‘FC 청마’랍니다. 하하.”

풋살, 그 매력은? ‘팀워크’ & ‘성취감’ Up!

김태경 S.Senior가 푹 빠져 있는 풋살은 어떤 스포츠일까? 큰 틀에서는 축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기란다. “풋살은 미니 축구 경기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만, 축구와 달리 풋살은 4:4, 5:5 또는 6:6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진행해요. 그리고 축구장의 사이즈보다 작은 규격의 필드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스로인(throw-in)과 같은 규칙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 맨 좌측의 위에서 브이(V)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태경 S.Senior
2. 'FC 청마'의 단체 사진
3. 공을 드리블 하는 김태경 S.Senior

은 생략하고, 짧게 킥인(Kick-in)으로 대체하는 정도의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풋살이 팀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라서, 함께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앞만 보고 러닝머신을 뛰는 유산소는 힘들고 재미도 없는데, 풋살은 공만 쫓아다니며 팀원들과 경기를 하면 짧은 운동 시간 내에 어느새 심박 수가 190을 넘나들 정도로 하루 할당 운동량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초체력, 근지구력도 향상되었죠."

이외에도 김태경 S.Senior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친목도 빠질 수 없는 매력으로 꼽았다. "처음에 풋살팀에 들어갔을 때는 회원들끼리 통성명하고 운동만 했는데, 우연히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 제 또래인 데다 몇몇 분들은 우리 고객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하. 그럴 때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오다, 새로운 분들과 교류하니 즐겁고 재밌어요."

단기간 다이어트? 풋살이 최고지!

"팀 스포츠 좋아하시고,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풋살 어떠세요?" 김태경 S.Senior는 뻔하고 지루한 유산소 운동이 힘겨운 삼정인들에게 풋살을 강력 추천했다. 특히 그는 축구를 잘하지 않아도 공차는 법을 아예 몰라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며,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도전해볼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풋살을 통해 활력을 찾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공 차러 오세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 운동이라, 단기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풋살 즐기기 전 알아야 할 꿀 Tip!

1. 축구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소모되는 운동이라 평소에 기초체력을 길러두면 경기를 오랜 시간 뛰고 즐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 추천입니다!

2. 축구가 단체 스포츠다 보니, 소속 팀이 없다는 막연한 생각에 오랫동안 운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지역별 지자체 소속팀이나, 동호회/팀이 정말 많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 동호회 소개 1편

신입 회원 대환영!
구기 스포츠로 친목 지수 UP

농구

다이내믹한 농구를 부담 없이 편하게

최현석 Manager (Tax4)

우리는 농구 동호회 '삼정BLUES'입니다. 총 30여 명의 회원이 운동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월 2회 평일 저녁 8~10시에 활동 중입니다. 농구는 몸싸움도 많고, 꽤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지만, 한 게임하고 나면, 육체의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농구 실력과 무관하게 농구를 좋아하신다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으니, 다이내믹한 농구를 마음 편히 즐기러 오세요~!

▶ **신청문의:** hyunseokchoi@kr.kpmg.com

축구

축구도 즐기고 친목도 높이고!

남궁헌재 S.Senior (ICE2)

일상에 지친 삼정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곳, 우리는 '축구 동호회'입니다. 우리 동호회는 약 50명의 삼정인들로 구성됐으며, 서울 및 경기권 인조잔디구장에서 한 달에 두세 번의 정기 모임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와 직급의 삼정인들이 서로 형, 동생으로 만나, 안부도 묻고, 평소 관심 있던 정보들도 교환하면서 축구 외에도 인간적으로도 행복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동호회지요. 메시와 호날두 축구 실력은 아니지만, 축구 열정이 넘쳐나는 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면 우리 동호회를 찾아주세요~!

▶ **신청문의:** hnamgoong@kr.kpmg.com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는 9개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취미 공유와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을 지원 중이다.
비록, 최근 코로나19로 활동 제약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신입 모집을 위한 동호회 소개를 준비했다.
이번 호는 삼정 동호회 소개 1편으로, 구기 스포츠 동호회부터 만나본다.

야구

야구 레슨 지원으로 초보자들도 환영

유영석 S.Analyst (Deal Advisory5)

야구 동호회는 뛰어난 실력, 성적 지향적이기 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도록 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수평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야구를 잘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야구에 대한 기본기 함양 및 실력 증진을 위해 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단체 레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구를 사전에 접하지 않은 분이더라도, 입단 후 기본기를 쌓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즐겁게 야구하실 삼정인, 없으신가요?

▶ **신청문의:** youngseokyou@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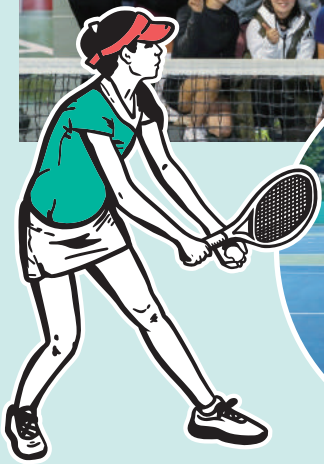
테니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테린이라도 OK!

박도휘 S.Manager (경제연구원)

테니스 동호회는 2014년 창설돼, 현재 총 4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즐기고 있어요. 우리 동호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 코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선수 출신, 대회 입상자 등 구력이 높은 사람부터 이제 막 게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테린이까지 다양한 구력자들로 구성됐어요. 모임에 참가하시면 본인의 구력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테린이라면 게임 코칭을 통해 게임 룰이나 매너 등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우실 수 있어요. 운동화 한 켤레와 테니스를 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 **신청문의:** dohwipark@kr.kpmg.com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비즈니스 다이어트 (Business Diet)

처음 수영을 배울 땐 누구나 물을 안 먹으려고 고개를 자꾸 물 밖으로 내어놓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반대로 가라앉게 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했던 일일 것이다. 고개를 물속에 박을수록, 어깨에 힘을 뺄수록 몸이 뜨게 되는 것은 한참 지난 후 알게 되는 원리다.

대표적인 멘탈 운동으로 꼽히는 골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운동 종목이 있지만 기업경영과 가장 일맥상통한 경기는 골프다.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을 한마디로 하면 '천고마비(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음을 비워라)'라 한다. 여기서 일련의 관통하는 원리는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힘 빼는 걸 배우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린다고들 한다.

사방이 모래 천지인 사막에서 차가 빠지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그렇다고 액셀레이터를 밟을수록 차는 더욱 더 모래 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유일하게 살아나오는 방법은 바퀴의 바람을 빼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인생이나 경영이나 마찬가지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예전에 국내 베테랑 기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100장의 원고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나, 이것을 한 장으로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명연설의 비결은 잡소리 빼기다. 1-1-1 원칙(한 가지 미션을 한 페이지로 기획하여 하루 만에 처리한다), 3S(Simple, Speed, Smart) 원칙 등 경영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도 그 핵심은 결국 줄이자는 것이다.

조직운영에서도 ‘빼기(-)’의 원리는 마찬가지다. 우선 회의시간을 미리 정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시간이 경과하면 거기서 바로 마치는 걸 연습하면 큰 효과가 있다. 결재시간도 줄이고, 보고서도 확 줄여야 한다. 복잡하고 두껍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전 경영에서 강조하는 ‘비즈니스 다이어트(Business Diet)’가 바로 이것이다.

조직 진단작업을 해보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웬만한 조직이라면 사실 있을 건 다 있다. 그러나 그 운영성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문제는 각각의 관리요소 등이 어딘가에 제멋대로 흩어져 산만하고,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해있으며, 무엇보다 핵심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역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말은 절대 진리다.

씨름에서도 맷집보단 기술이고, 체중보단 근육이다. 비즈니스 다이어트는 조직의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일이다. 줄이면 살고 늘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해나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결국 평소에 자신의 몸매 관리하듯이 줄이고 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직은 비대해지고, 순환은 막히고, 기업문화는 관료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살을 빼건, 힘을 빼건, 잡소리를 빼건 결론은 비즈니스에서 빼는(-) 것은 고수고, 더하는(+) 것은 하수인 셈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는 국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진단·평가해온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급 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작《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21세기북스, 9쇄 돌파)는 각종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두줄칼럼》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혁신 등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 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언어 플랫폼이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지나면 별일 아닌 일!
쓸데없는 걱정, 어떻게 멈출까?

걱정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적당하게 걱정하면 미래의 일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걱정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하거나 걱정 자체에 몰두하며 불안, 긴장감, 불면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걱정을 하는 걸까? 걱정을 적정 수준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걱정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자주 듣곤 한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사서 걱정 그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 걱정을 하지 않게 될까? 전혀 아니다. 충고를 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또 너무 많이 걱정을 말해버렸구나. 저 사람은 내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좋은 이미지 심어줘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와 같은 부정적 생각의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심리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라고 한 결과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당신이 걱정을 하는 진짜 이유

걱정은 불안한 감정과 관련된 '생각'이다. 불안장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Aikins & Craske, 2001)은 불안과 걱정의 심리학적 요소에 대해 밝혔는데,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걱정을 함으로써 현실에 닥친 '진짜 위협'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씨는 입사 동기들 중에 승진이 가장 느리다. 처음에는 '가늘고 길게 가자'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요즘엔 승진 시즌만 되면 머리가 복잡하다. 계속 회사를 무사히 다닐 수는 있을까, 정 안되면 이직을 해야 할 텐데 이 커리어로 이직이 될까, 어제도 팀장님이 보고서 지적만 하시던데 회사에서 나가라는 의미인가? 이러다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까, 등 수없이 많은 걱정들을 하느라 기운이 나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A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승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 걱정, 또 승진 누락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회피하고자, 즉 '지금의 진짜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 걱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하기에,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에 계속 걱정을 한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라고 일컫는다. 실제 상담실에서도 '걱정을 미리 해두면 최소한 내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걱정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자동적으로 걱정을 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최악의 기대와 걱정을 해두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는 일종의 징크스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 편하기 위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소한 징크스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걱정이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이런 걱정거리가 일상 속에 산재할 경우이다. 걱정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안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모호한 불안감을 줄이고 이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걱정을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걱정목록 써보기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걱정목록 쓰기'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걱정거리를 써보는 것이다. 시간은 되도록이면 일과 중 늦은 시간, 예를 들어 퇴근길 10분 정도로 정해두면 좋고, 꼭 글자로 쓰지 않고 폰 메모장에 기록해도 된다. 그리고 일과 중에 불쑥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걱정하지 말자'고 억지로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걱정 시간에 걱정하자'고 미뤄두고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걱정목록을 쓰는 시간에는 오로지 내 걱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걱정목록을 쓰는 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릿속의 걱정을 글자로 보면 걱정이 명료화되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들이 구분된다. 둘째, 걱정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던 사람들도, 매일 10분 내내 걱정만 해보라고 하면 몇 가지 생각이 반복될 뿐 생각보다 걱정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모호하게 남겨두면 더 걱정되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걱정의 실체를 꺼내 보자. 셋째, 걱정을 써보면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걱정을 마주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걱정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쉬운 방법부터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 2021 성장 기대 UP

최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몽골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 등 자원의 국제시장 가격 상승과 중국의 대몽골 석탄 수입 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KPMG 몽골 이주호 Director를 통해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의 2021년 경제 전망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살펴보려 한다.

글. KPMG 몽골 이주호 Director
E-mail. jooholee@kpmg.com / Tel. +8297699582987

석탄, 구리 중국 수출 물량 증가… 경제 성장 기대

몽골은 올 초까지 이른 국경봉쇄를 통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를 자랑했으나 최근에는 1일 확진자 수가 2,300명 수준으로 누적 기준 16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800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확진율로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신 2차 접종률도 세계 순위권으로 63%에 달하나 현재는 중국산 백신 접종의 낮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020년 수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몽골은 5년여 만에 최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인원과 물류의 이동에 제한이 컸고 여러 번 진행된 록다운 방역으로 인해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 간 분쟁으로 인해 몽골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과 구리의 중국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동 원자재의 국제 시세의 증가에 힘입어 2021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업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금씩 상황이 완화되어가고 있으며, 8월부터는 3차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1. KPMG 몽골 오피스가 위치한 Blue Sky Tower
2. 몽골의 테를지 국립공원
3, 4. 몽골의 밤하늘과 사막

정치적 안정성 유지될 것,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육성 사업 추진 예상

그동안 몽골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총선 및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고위직과 실무진이 모두 교체되어, 기존의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오지 못한 점에 있다. 그러나, 2021년 6월 실시된 몽골 대선 결과 현 집권당인 인민당의 후보자 우흐나 후렐수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총선까진 최소 3년간 몽골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임기 역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어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렐수흐 대통령의 선거공약상 정책 방향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안보 확보,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주력으로 내세웠으며, 향후 6년간 에너지 시설 확대 사업, 도로, 철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및 광물가공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몽골 진출 전, 이것만은 꼭 Check!

몽골의 상법과 세법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법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다. 몽골의 사법부는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이나 다수의 해외투자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몽골 자국 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판결을 받는다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재판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 몽골 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한다.

또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엔 고려하지 못했던 발전, 도로, 철도 등 노후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사업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들이 자주 발생한다. 국제적으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몽골의 인프라 발전 수준은 외국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몽골에 투자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KPMG를 찾는 고객들이 다수 존재한다. 투자 의사 결정 전에 찾았다면, 몽골의 특수성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가 예방되었을 경우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진입 전 미리 자문을 받고 투자 및 진출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KPMG 몽골

KPMG 몽골은 100여 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작은 규모의 오피스로 KPMG Audit LLC와 KPMG Tax TMZ LLC 2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Oyu Tolgoi 광산, MCS group, Tavan Bogd group, APU group 등 몽골 최대 기업들의 외부 감사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필자가 소속된 Mongolia의 Advisory본부는 KPMG Audit LLC의 부서로 존재하며 주로 ADB, EBRD, UNDP, IMF 등 국제금융기구발 용역 및 SB Energy, Marubeni, ENGIE, Barloworld 등 해외 기업의 몽골 진출을 재무실사, 모델리뷰, 시장 진입 자문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KPMG 몽골은 삼정KPMG의 자회사로 2012년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많은 몽골 및 몽골 진출 해외 기업들에게 회계감사, 세무, 투자자문 등의 영역에서 몽골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ig4 중 유일하게 한국인 파견자가 있는 회계법인으로 몽골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PMG 몽골
이주호 Director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Samjong News

‘제6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개최

IPO 예비 기업 대상 상장 전후 회계 및 세무 전략 제시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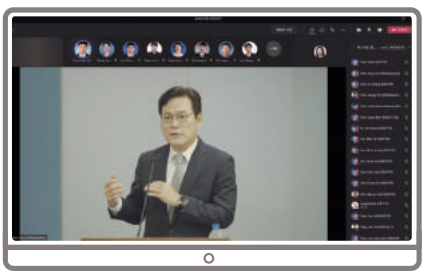
삼정KPMG가 지난 8월 26일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6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윤성원 팀장의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리우법무법인 하종원 위원이 ‘상장 심사 전에 구비하여야 할 행정관리시스템’을 안내했다. 이어 삼정KPMG 강진명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IPO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전했으며, NH증권 노경호 부장이 연사로 나서 ‘실무사례로 보는 IPO’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삼정KPMG 감사부문 한은섭 대표는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상장 직후 적용되는 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Contact: ICE1 윤주헌 상무 joohunyoon@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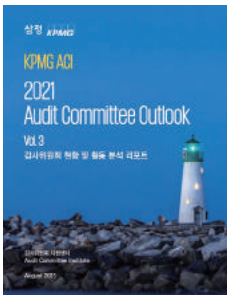
‘제6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는 [삼정KPMG 아카데미 - 세미나 다시보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정포럼’,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강연 나서

‘美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과 시사점 논의’



삼정KPMG는 지난 9월 2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삼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해 포럼에서 ‘코로나 19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의 지표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통화의 기축국인 미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전망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1 Audit Committee Outlook Vol.3’ 발간

삼정KPMG는 지난 8월 13일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Vol.3)’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KOSPI 200 기업 중 각 감사기구를 설치한 비중을 살펴봤다. 또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회 안건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감사위원회 저널 18호’ 발간

삼정KPMG는 지난 8월 23일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및 감사위원회 교육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ACI 인사이트 내용이 포함됐으며,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의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책임’ 관련 인터뷰와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패러다임 변화 시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과 사외이사의 역할’ 관련 기고문도 게재됐다. *Contact: ACI 강환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사랑나눔

매칭 기부비누 제작 봉사활동 진행

삼정KPMG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미세먼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병 노출로부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누를 지원하는 ‘매칭 기부비누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참가자들이 친환경 비누를 제작하면, 그 개수만큼 전문가가 제작한 비누가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매칭 기부되는 활동으로, 총 105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해 100개의 비누가 관악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됐다.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MCS2본부 정현종 상무 영입

삼정KPMG가 2021년 7월 21일 자로 MCS2본부에 정현종 상무를 영입했다.

정현종 상무는 IBM Korea, IBM China, SAP Korea, EY 컨설팅에서 SAP 관련 서비스, Cloud 도입 전략 수립, 해외 Business Network 개발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MCS2본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현종 상무는 “COVID-19 등으로 시장과 고객의 요구사항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삼정KPMG가 국내외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는 컨설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정현종 상무 (MCS2본부)

경력

· EY 컨설팅 (2017~2021년)
· SAP Korea (2014~2017년)
· IBM China (2012~2013년)
· IBM Korea (2006~2011년)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 KPMG

NK BIZ FORUM

NK비즈포럼 제6기 모집

'NK비즈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정KPMG와 중앙일보가 함께 진행하는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정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 NK비즈포럼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기간

2021년 10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개강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장소

롯데호텔서울 or 더 플라자호텔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문의

nkbizforum.com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